
 인천광역시	보도자료		 재외동포청 인천설치 확정!
	배포일자	2023년 5월 15일(월) 총 4매	
담당 부서 보건환경 연구원	담당자	• 질병조사과장 한영선 ☎440-7981 • 담당자 김명덕 ☎440-7983	
사진(이미지)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
보도시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소래포구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균 확인 ...
인천시, 예방수칙 준수 당부
 - 어패류 5℃ 이하 저온 보관 및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-
 - 어패류 익혀 먹기, 상처가 있는 경우 바닷물 접촉 주의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지난 8일 채수한 소래포구 해수에서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균이 분리됨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.

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 매해 인천 연안 바다를 대상으로 비브리오패혈증 균 감시 사업을 하고 있다. 특히 비브리오패혈증균은 5월부터 10월까지 주로 분리되며, 환자는 대부분 6월부터 10월 사이에 발생한다.

비브리오패혈증균 감염*은 주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바닷물에 접촉할 때 발생한다. 간질환자, 알코올 중독자, 면역 저하 환자 등은 고위험군으로 치명률은 약 50% 내외이다.

* 주요임상증상 : 급성발열, 오한, 혈압저하, 복통, 구토, 설사 등(잠복기 12~72시간)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▶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고, ▶어패류는 충분히 익히며, ▶어패류 보관시 5℃

이하로 유지, ▶어패류 요리 시 사용한 도마, 칼 등은 반드시 소독하는 등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.

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“코로나19가 일상적 감염관리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해변 물놀이가 늘어날 수 있어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므로 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바란다.” 고 말했다.

<붙임>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준수사항 카드 뉴스



비브리오패혈증이란?

비브리오패혈증균(*Vibrio vulnificus*)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됩니다.



비브리오패혈증균(*Vibrio vulnificus*) 따뜻한 바다에서 흔히 발견

비브리오패혈증 증상은?



급성 발열



오한



복통



구토 및 설사



저혈압



피부 병변

세균 침입 후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잠복기는 12-72시간입니다.
주요 증상은 급성 발열, 오한, 복통, 구토, 설사 등입니다.
약 1/3의 감염자에서 저혈압이 발생합니다. 증상 시작 후 24시간 내 피부 병변이 생기고 주로 다리에 발생합니다.

비브리오패혈증 예방 방법은?

- 

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다.
- 

어패류를 요리한 도마, 칼 등은 반드시 소독 후 사용한다.
- 

어패류를 다룰 때 장갑을 착용한다.
- 

어패류 조리 시 해수를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야 한다.
- 

어패류는 5°C 이하로 저온 보관한다.

비브리오패혈증 치료 방법은?

- 치료방법에는 약물로 치료하는 방법과 수술로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- 약물치료시 플로오로퀴놀론 계열이나 세팔로스포린, 테트라사이클린 등의 항생제를 투여합니다.
- 병변이 심한 경우에는 절제, 절개하거나 고름을 짜내는 등의 외과적 처치를 시행합니다.

